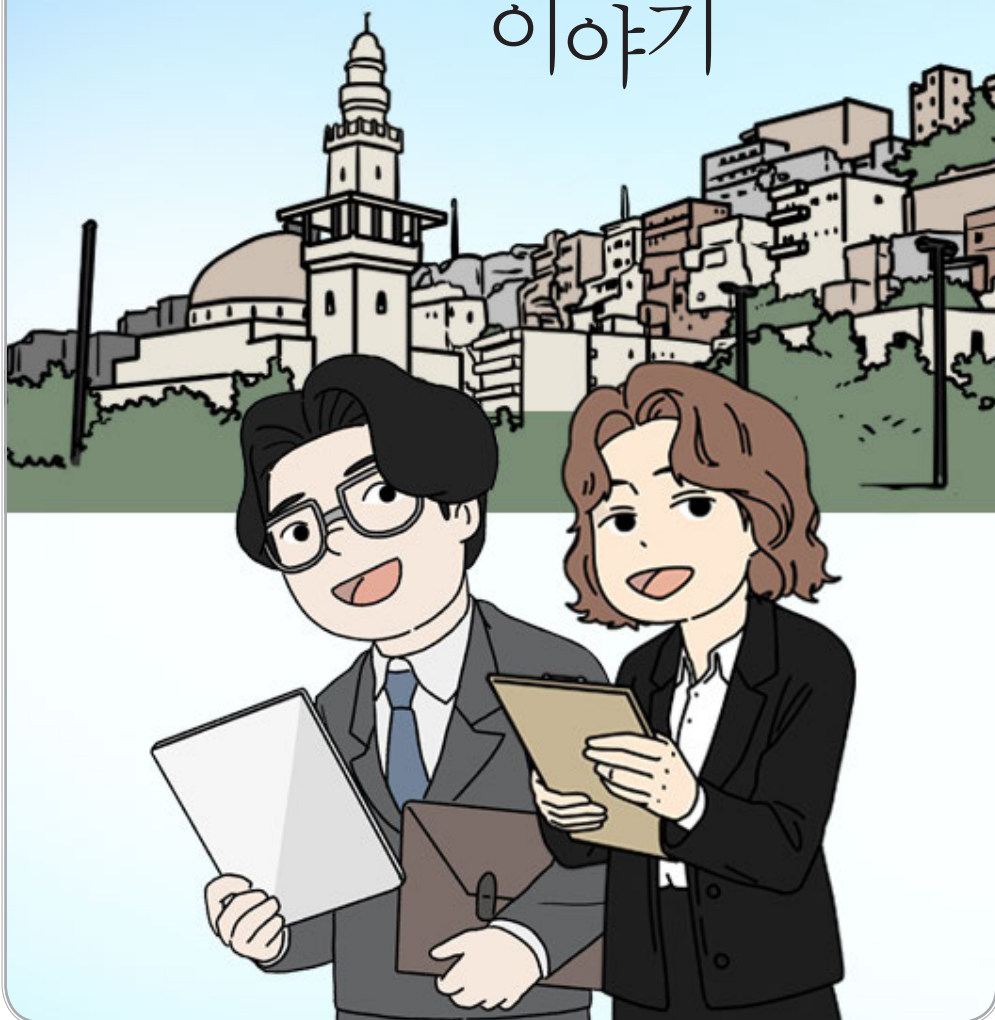


도전하는 코트라人 이야기



해가 지지 않는 KOTRA
도전하는
코트라人
이야기

기획, 제작 (주)사사연 (02-569-4409)

웹툰 제작 스튜디오 타이거



글, 그림 김보통 | 2013년, 20대 청년 암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아만자>로 데뷔했다. 무거운 주제를 은유와 위트로 풀어내는 솜씨가 탁월하다. 2014년 오늘의우리만화상 수상. 한겨레 토요판과 레진코믹스에 <DP>를, 레진코믹스에 <내멋대로 고민상담>을 연재하고 있다.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 <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 등의 에세이를 썼다.

목차



제1화

미생의 숨겨진 조력자, KOTRA

005



제2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015



제3화

초짜, 대형 바이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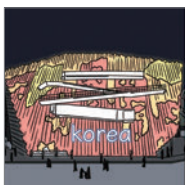
027



제4화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

037



제5화

화려한 엑스포, 그 뒷이야기

045

이 웹툰은 코트라사의 에피소드를 기초로 드라마적인 재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제6화

익숙함에 속지 않기

057



제7화

한 단어의 힘

067



제8화

공포의 환영 축포

075



제9화

글로벌 무역 사기를 해결하다

087



제10화

GP, 새로운 기회를 열다

099

제1화

—

미생의 숨겨진 조력자, KOTRA

요르단은
한국산 중고차의
주요 수출대상국
중 하나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한국의
최대 중고차 수출시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었다.

그러나 2012년
요르단 정부가 연식 5년 이상
차량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며

요르단 중고차 무역시장은
규모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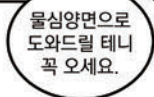
이런 상황 속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드라마
<미생> 이었다.



<미생> 드라마 관련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내, 호텔, 유적지 등 드라마에 나올 만한 주요 방문지는 꼼꼼하게 촬영했다.













웹툰과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주된 업무가 아니고
무역관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작품을 통해
KOTRA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은

요르단은
처음이지요?

네, 미생 촬영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생활에서 내가 해보았던
가장 특이하고 즐거운 업무로 기억에 남아 있다

자동차 생산시설과
대중교통이 미비하여
모든 차량 수요를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 요르단.

그리고 근동 지역
중고차 시장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요르단에서
한국 중고차가
인기라고 들었는데요.

가격경쟁력이 있고
유지비도 저렴해
인식이 좋은 편이지요.

한때 국산 세피아가
요르단 국민차로 불릴
정도로 인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꼭 오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릴게요.

암만무역관은
국내 중고차의 요르단 진출을
앞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제2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말씀하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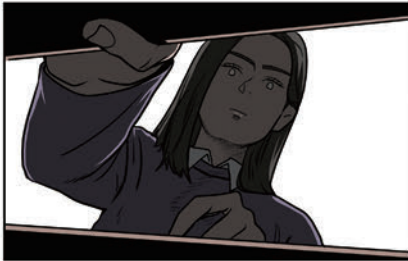


물건은
어디에 있죠?

주유소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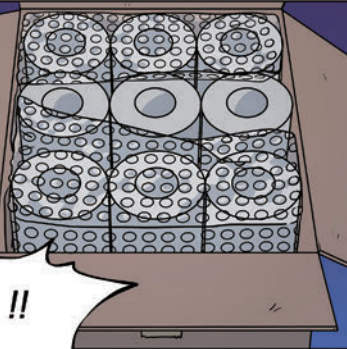
아, 저긴가.



약속드린 물건은
주유소 기둥쪽에
있습니다, 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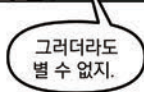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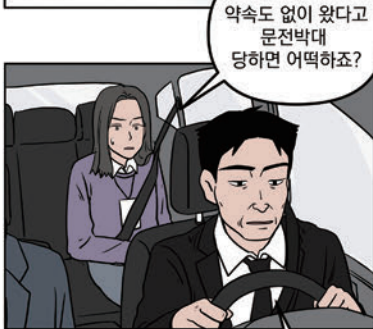
상자가 하나 있네요.
내용물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니
안 되더라도 시도해봐야 하네.

먼 길을 무작정 달려온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인지,
A사로부터 샘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생해서
얻어낸 이 샘플,
꼭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네, 샘플 확보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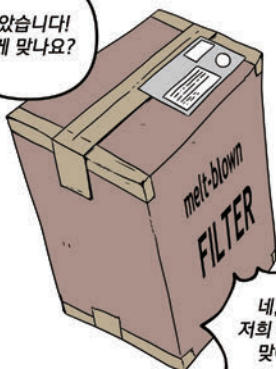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짐을 바로 찾을 수
없다고요?

인천국제공항



찾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네!!
저희 짐 이거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마스크 만드는 데
필요하시다면서요?

중요한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한숨 돌렸다고
생각했으나
우여곡절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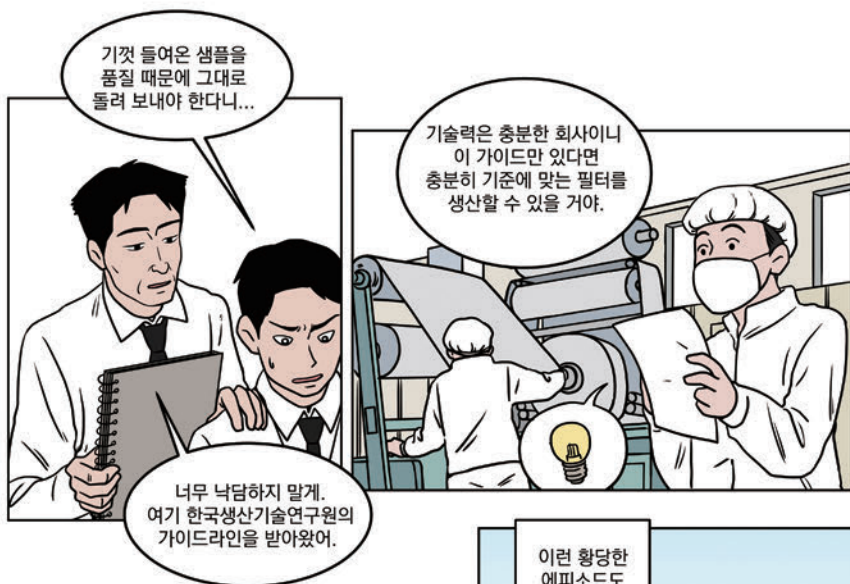


3번 연속으로
샘플 테스트가 실패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A사가
마스크용 MB필터를
처음 생산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또한 미국의 N95와
한국의 KF94 마스크 인증 기준이
상이한 부분도 문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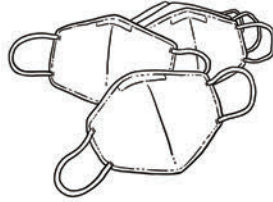




내용은 이랬다.
업체가 있는 나라도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직원들이 쓸 마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마스크가 없어 직원들이
출근할 수가 없으며,
직원들이 쓸 마스크를 먼저 보내줘야
생산이 가능하다고 연락해왔다.

샘플 필터를 가지고
라벨 없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관세청 협조를 받아 업체에 전달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고맙다며
사진까지 찍어
보내주었다.

아이러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여운 에피소드로
기억에 남는다.

2020년 4월

납기일 운송 등
세부사항 조율 후
드디어 MB필터 40톤
수입계약이 체결되었다.



전 세계 무역관 중
3개소만이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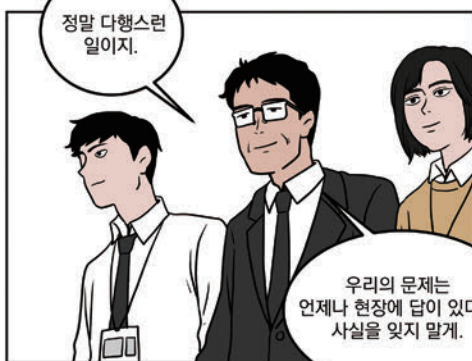
시카고가
최대 물량이었다.



이걸로
국내 마스크 수급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네요.



정말 다행스런
일이야.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대면 미팅을 거부할 때
포기하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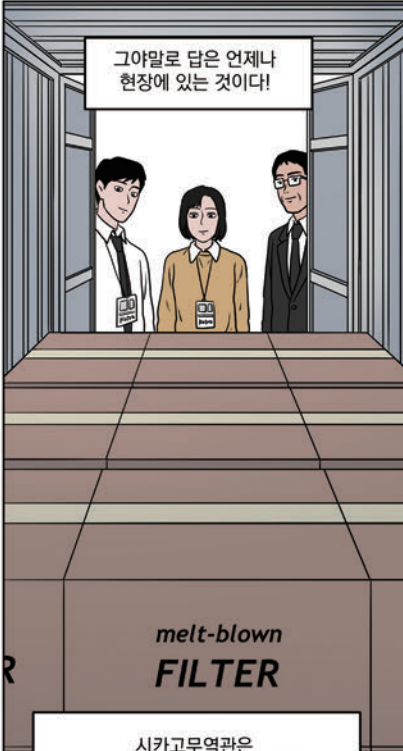


샘플도 구하지 못하고,
마스크 생산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직접 발로 뛰고
진정성을 보인다면



셀러든 바이어든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배웠다.



그야말로 담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것이다!

melt-blown
FILTER

시카고무역관은
2021년 요소수 수급위기 때에도
수입 프로젝트 4건을 발굴,
국내기업을 성공적으로 연결하였다.



국가에 기여하는
무역진흥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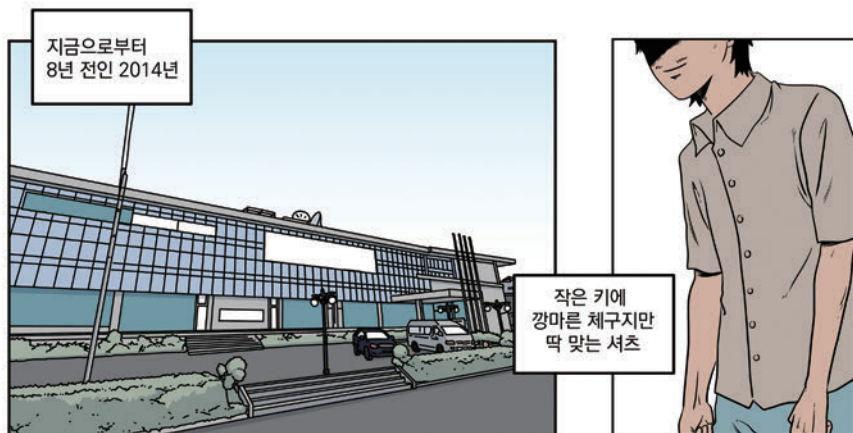
kotra

나는 KOTRA인이라는 긍지를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달리고 있다.

제3화

—

초짜, 대형 바이어가 되다







*지사화사업 지사화사업은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가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역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수많은 국가의 바이어를
상대하지 않고 폐차장에
가만히 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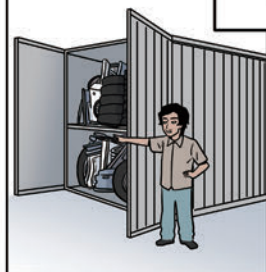


바이어들이 현장에서
한국 돈으로 부품과 차를
바로 사가는 시기여서인지

초짜가 부품을
사겠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업체는 드물었다.



선금을 먼저 주면 부품을 모아놓고
컨테이너를 채울 만큼 물량이 되었을 때
한국에 와서 잔금을 지불하고 컨테이너를
선적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업체에 선금을 준다는 건
바이어에게도 부담이었다.

후, 안되겠네요.



네? 뭐가요?

한국으로 가시죠!



바이어도 한국에 가서
직접 폐차장들을 만나고
부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바이어에게 선뜻 초청장을 써줄 한국 업체는 없었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다행히 KOTRA 본사에서 주최하는 수출상담회가 있었고

비자를 받아 바이어를 한국으로 보냈다.



내가 소개한 업체들과 잘 만날 수 있게 메시지를 설치하게 하고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중간 중간 연락을 도와주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



무역관에 바이어가 찾아왔다.



소개해주신 폐차장과 품목이 맞아 떨어져서 거래를 트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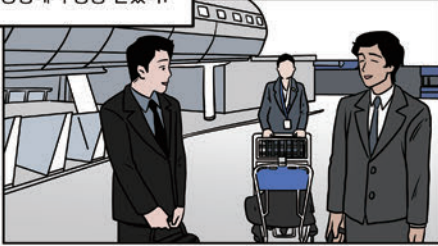
고맙지만, 발기에는 너무 큰 선물입니다. 거래가 잘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아, 네...

소개해 줄 다른 한국업체도 많으니 자주 만나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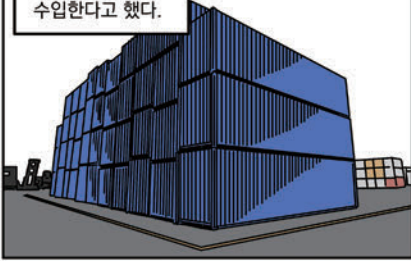
그 후 무역관이나
공항에서 종종 만났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컨테이너를
하는 정도였는데,



2~3년 만에
3~4컨테이너를
수입한다고 했다.



다른 바이어나
한국 폐차장으로부터
소식을 자주 듣게 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좋은 부품입니다.

그분들 말로는 캄보디아
중고차 부품시장의
큰손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얼마 만이야~
요즘 일은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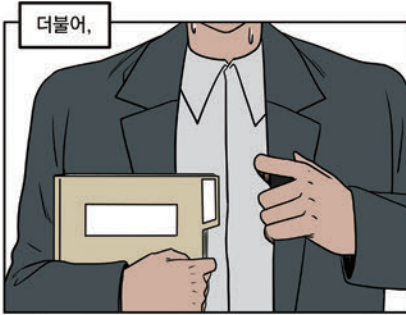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10컨테이너 이상 수입했었죠!

사업이 커지니
지방에 운영하던
소매 매장 3곳은
다 접고,



프놈펜에 도매 매장을
5개나 열었습니다!





제4화

—

현지 네트워크의 중요성

나의 두번째
파견지 태국.

관계의 중요성

흔히 KOTRA의 강점은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위잉-

야, 뭐 하나?
밤이나 같이 먹자.
나와!

어, 그래!
금방 나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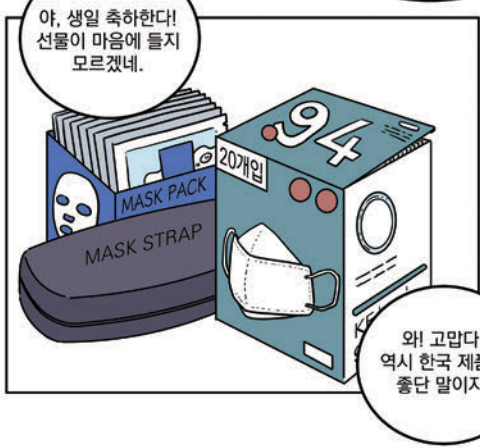
어, 저기 왔다!

여 오랜만이야.
와서 앉아!

이 친구들은
하이쏘(High Society)다.

하이쏘란
태국 경제 전반을 이끄는
상류층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재벌 2세들이다.





하이쑈들은 보통
더 많은 이익추구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적고 보수적이다.



반대로 친분이 있는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든 사생활이든
경계를 크게 낮춘다.

친구

따라서 보다 쉽게
사업을 제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기회를 만들 수 있다.



KOTRA에서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해왔고
나 또한 이 친구와 쌓은
신뢰가 있다 보니

그리고 여기는
한국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 하시는 분

여긴 한국 물류 관련
회사에서 나오신 분



친구 본인을 포함,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기업들을 직접 소개하고
연결해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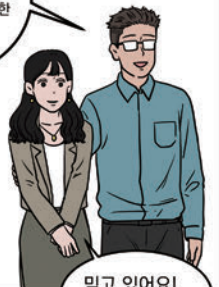
자동차 회사 분이랑
다른 나라에서 합작 법인
설립하기로 했어.

그 물류기업이랑도
다른 합작법인 하기로
했고



잘됐네!
너 물류 쪽은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가
웨딩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한국에 추천할 만한
업체 있어?



믿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 웨딩드레스
제작업체입니다.

너무 좋네요!
바로 사업 시작하시죠!

그 외에도
식품, 온라인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과
협업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나의 '관계'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한 것이었다.

무역관 차원에서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도 적지 않다.

무역관은 태국 투자청 등
주요 기관 인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기업 맞춤형 투자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해 뒀어! 잘 부탁해!

또한, 동남아교육부장관기구
(SEAMEO) 인사들과의
관계를 이어오면서 지난 2년간
국내 교육기자재 기업 20여 업체를
태국에 진출시키고 있다.

참고로,
동남아교육부장관기구
주요 인사들 또한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이렇게 단단하게 맺어진
현지 네트워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협력 및
우리기업 진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힘써준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어.
정말 고맙다.



에이, 뭘 서먹하게
그런 얘기를 하나.

친구끼리
서로 돕는 거지, 뭘.

업무에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그룹에
외국인이자 아웃사이더인
나를 받아들여줄 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술이나 한 잔 해!



오랜 친구처럼
거리낌 없이 대해주고, 서로의 속
깊은 얘기를 나눌 때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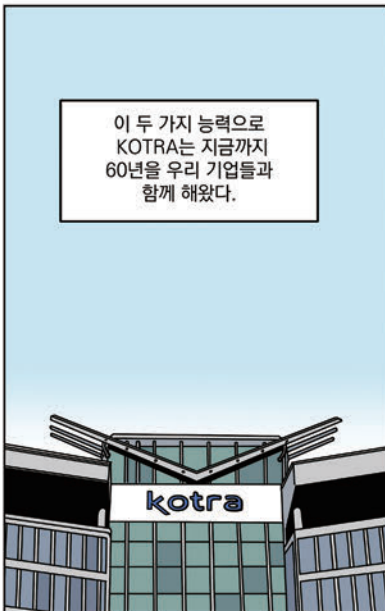


그래, 이건 단순히
업무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KOTRA가 강조하는
진짜 관계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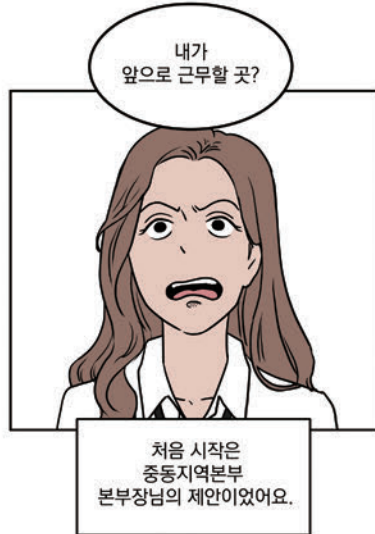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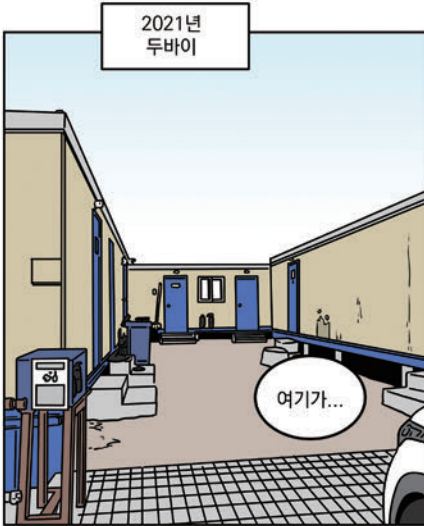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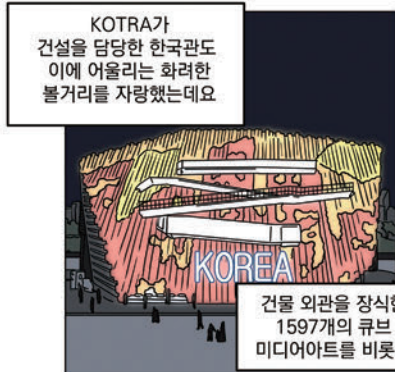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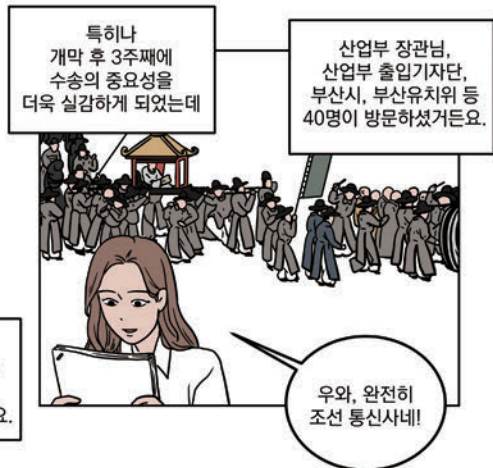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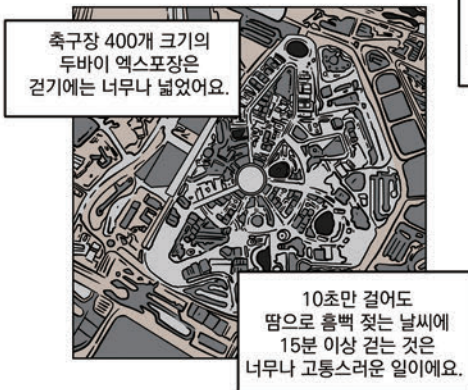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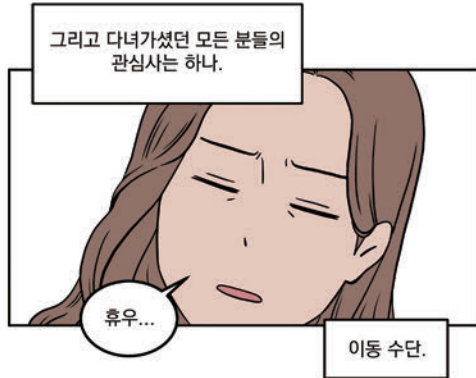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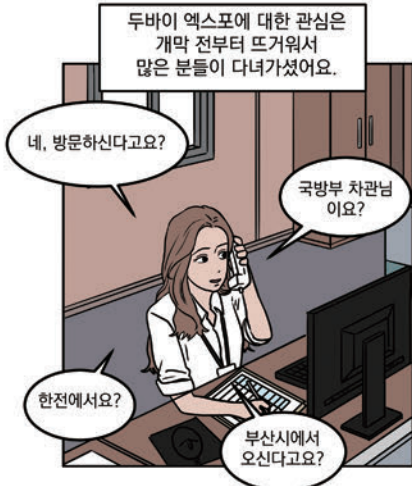
제5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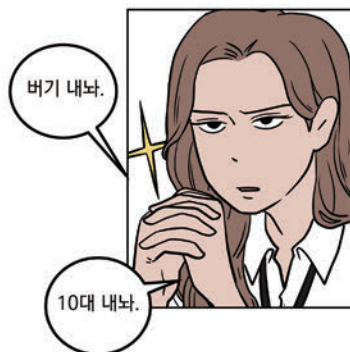
—

화려한 엑스포, 그 뒷이야기









다행히 양해를 구하고
주요 VIP분들은
케어할 수 있었어요.



이웃인 프랑스관에서도
버기를 빌려주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사절단을 맞이했어요.

버기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었어요.

**KOREA
NATIONAL DAY**
16TH JAN 2022

엑스포에는
'국가의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가국들이 돌아가며
축하행사도 공연도 하는
일종의 참가국 생일 같은
날이에요.

역대급 생파를 위해
다른 나라 국가의 날 행사도
열심히 참관했어요.



대한민국을
알리는 날인데
밀릴 순 없지!

주요 국가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날은
부지런히 참관을 다녔습니다.

1. 공식 세례모니
(국기 게양식, 국가 연주,
양국 참석 대표 스피치, 문화공연)
2. 해당 국가관 투어 및 UAE관 투어
3. 퍼레이드
4. 공식 오찬
5. 양자회담, 방명록 작성
6. 연계 비즈니스 행사
7. 연계 문화행사

국가의 날은
크게 이렇게 구성됩니다.

문제는 행사가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각국마다 각기 다른
커스터마이징으로
엑스포 조직위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자율성이 주어졌어요.

엄친 데 댁친 격으로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퍼레이드 중지,
일부 국가 참석 대표 변경 등
행사는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행사 난이도가 격상되며
중동지역본부
리야드 무역관에서
흑기사를 보내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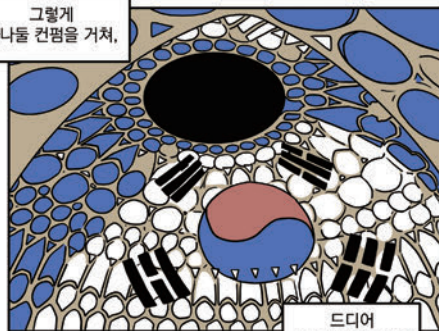
이름: 연차장
직업: 용병
칭호: VIP 행사 전문가

정부와 현장 상황에 맞춰
행사 참석자와 프로그램에
무수한 수정, 재수정, 보완,
변경이 이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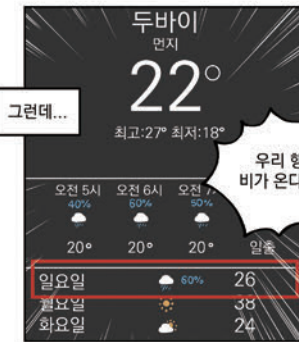


행사 세부사항
컨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컨펌을 거쳐,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우리 행사날
비가 온다고????

심한 비바람으로 첫 행사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이
취소되었어요.

설마설마했는데
정말로 3년만에
비가 올 줄이야...

무용단 공연은
한국관에서
진행해야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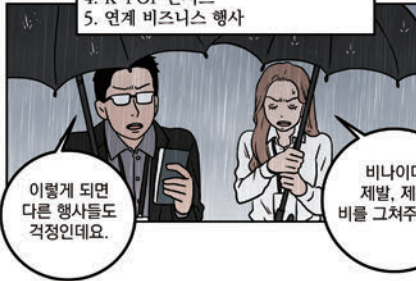


한국의 날 / 한국주간 행사

1. 공식 세레모니
2. 해당 국가관 투어 및 UAE관 투어
3. 양자회담, 방명록 작성
4. K-POP 콘서트
5. 연계 비즈니스 행사

이렇게 되면
다른 행사들도
걱정인데요.

비나이다
제발, 제발
비를 그쳐주소서!



직원과 스태프들의
기청제 덕분인지
다행히 중요행사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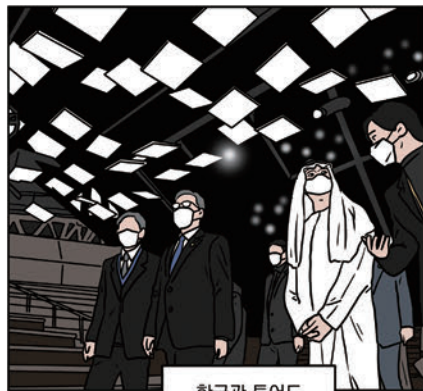
살았다!



공식 행사인
VIP 스피치



공식 세레모니
축하 공연을 거쳐



한국관 투어도
성황리에 진행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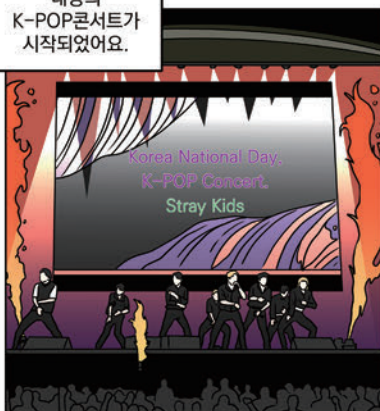


휴우...
행사가 잘 진행돼서
진짜 한숨 돌렸어요.

그러게요!
부산시립무용단
공연도 비때문에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리고 드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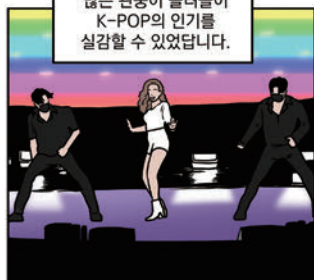
대망의
K-POP콘서트가
시작되었어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 인원이 6300명으로
제한되었는데,



공연장 밖에도
많은 관중이 몰려들어
K-POP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UAE 정부와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에서도
반드시 개최해야한다고
요청했을 만큼



K-POP 콘서트는
엑스포 인기몰이를
담당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주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다...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날 일정은
종료되었어요.

VIP 다음 일정이
저희 리야드 쪽이라
복귀해 보겠습니다.



연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어진 일정인
한국우수상품전을
주관한 전략전시팀도



행사 한 달 전인데
전시 기간을 하루 줄이고
전시장을 바꾸라고요?



1.5일 만에 부스 설치,
하루 만에 투어 일정
변경이라는 인간승리의 신화를 써내며
일정을 무사히 소화해내고



복귀하는 순간까지
여러 돌발상황이
끊이지 않았지만



두바이 엑스포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어요.



한국관 시공부터
개관식, 국가의 날,
그리고 우수상품전까지



세계 엑스포팀뿐 아니라
중동지역본부, 두바이무역관,
전략전시팀을 비롯해
사장님까지 모두가 하나되어
만들어낸 두바이 엑스포 행사.



이렇게 KOTRA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답니다.



제6화

익숙함에 속지 않기

2007년
12월 27일,
목요일.

첫 파견지인
카라치에서 근무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을 때였다.

크리스마스며
연말 분위기에
내 마음도 괜히 들뜨네, 하하.

모처럼 칼퇴근도 했겠다,
오늘은 느긋하게
연말 분위기를 즐기며
저녁식사를 해야겠어.

오늘도 업무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라, 제 차키가?

방금
차키 떨어뜨리셨어요.
정신 없는 하루죠?
허허.

허허, 감사합니다.
떨어진 줄도 몰랐네요.

그만큼
쉽없이 달려왔으니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조금 남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카라치에
초파와서 근무한 게
벌써 2년 반 정도가
되었다니...

어느새 파견근무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것 같아... 하하.

이 시간에
무역관 직원
OO에게서
웬 전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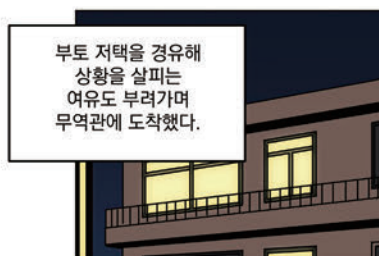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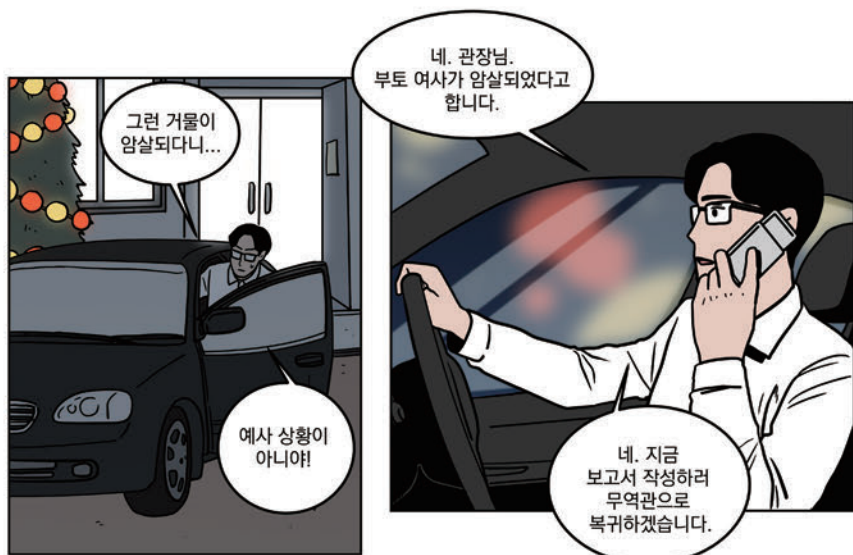
이슬람권 최초의 여성 국가 수반이 된 전직 총리였다.



카라치 출신의 거물 정치인이기도 하였다.



오랜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해 선거운동을 벌이던 차였는데...



전화로 최초 상황을 알려준
글로벌 스태프와 함께
해외시장뉴스를 작성하고
본사에 상황을 보고했다.



네. 현재 상황 관련해
기사 업로드 마쳤습니다.

휴, 이제 급한 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벌써 시간이 10시네요.
집에 들어가 봅시다.



집에 가신다고요?
지금 밖은
너무 위험합니다!

무역관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음... 글썄요.
여기는 너무 덥고
모기도 걱정인데.

비교적 안전지대인
우리 집으로 가는 건 어때요?
별일 없을 것 같은데.

당시 나는
카라치에서의 시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보통 목요일에 발생,
금요일 늦은 시간 이후
많은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와
소요사태가 절정에 이른다
주말을 지나 월요일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무역관이나 주요국 공관과
정부 기관이 위치하고
관련 인사들이 거주하는



카라치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시위나 폭력사태가
번지지 않으니 안전해요.

그러나 내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긴 평소 가로등이
켜져 있어 밝은 곳인데...



차량 수십 대가
뒤집힌 채로
불에 타고 있었다.

부토 여사의 죽음에
분노한 시위대 중
일부가 폭도로 변해,
닥치는 대로 불태우고
온 시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이다.



군인과 경찰도
이미 달아나버리고,
도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믿은
자만심.



익숙함에 속아
나 자신과 소중한 동료들
위험에 처하게 하고 말았어!



그래도 무사히
도착했네요.



네...
그러게요.



휴...

살았다...

우리가 다시
출근할 수 있기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다.



ATM 기계란 기계는
죄다 돌려주고만...

사무실에 도착 후
직원에게 '할랄이 아닌
음식을 먹은 죄'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 시간을
주었다.



그 기도 덕분에이었을까?
후일 그 직원이 파키스탄에서
영향력있는 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만약 초짜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무역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무모한 짓은
안 했었겠지.

그 이후로,
특수지에 발령받은 후배들을 볼 때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곤 한다.



그리고 이 말을
배먹지 않고 전한다.

위험지역 근무,
익숙함을 경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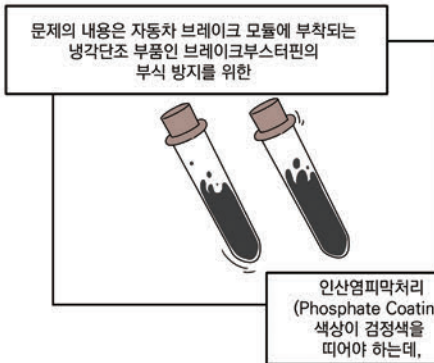


카라치 근무에서
배져린 경험을 통해
얻은 나의 교훈이다.

제7화

—

한 단어의 힘



큰일이 터진 것이다. 유독 철저한 품질관리가 기준화된 자동차 산업 내에서도 안전과 직관된 자동차 브레이크의 모듈에 적용되는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네? 그게 사실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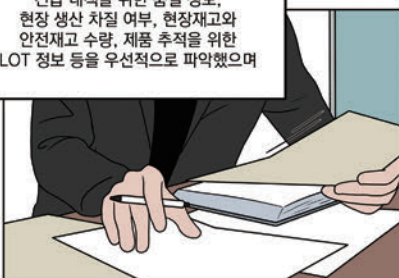
무역관 담당자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특별한 해결 방안이나 대안도 없이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온 바이어를 대상으로,



일단 무역관 담당직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며 대응책을 정리해 나갔다.

긴급 대책을 위한 품질 정보, 현장 생산 차질 여부, 현장재고와 안전재고 수량, 제품 추적을 위한 LOT 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했으며



해당 부품 사진이 담긴 이메일과 샘플 택배 배송을 긴급히 요청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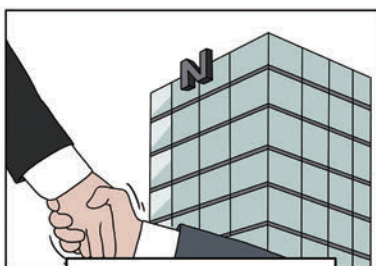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바로 국내 기업인 N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N사의 J대표는 무역관 직원과의 긴급 논의 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N사는 당시 토론토 무역관의 지사화사업 8년차 친밀 고객이었으며 해외 거래처와의 신뢰를 매우 중시하였기에,



즉시 출장 티켓을 끊었다.



그리고 바이어 상담 이전에
도금처리 협력사와 함께
화학적 성분 및 실험 결과
등을 분석해본 바,

인산염피막처리 공정 중
2가철(Fe^{2+}) 산화 차이
때문 변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품질과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였다.

N사의 대표이사가 비행기에
오른 상황에서 무역관 담당직원은
분석 결과 내용을 전달하며
바이어 측 이해를 구해보려 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최종고객사인 A사의
QM 4435M 코팅
스펙에 따라



고민이 컸다. 아무리
자동차 브레이크 모듈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품이라
할지라도,

흠

부품의 성능이 아니라
색상이 문제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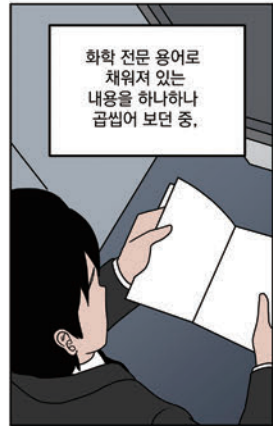
일단 긴급히 잡힌
상담 일정에 맞추어
무역관 직원 또한
비행기에 올랐고,



바이어가 언급한
QM 4435M 코팅 스펙을
세심히 공부하였다.



화학 전문 용어로
채워져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던 중,



'코팅 색상은 검정색이어야 한다'
(Shall be black)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띄었다.

3.1.1. rem... to
minimum. Alternate lubes should be utilized if
possible.

3.1.2 Appearance And Cure.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 color the protective coatings de-
scribed herein shall be black.

3.1.2.1 QM4435M, code G, parts shall be evenly
coated and dry to the touch. When held within

잠깐만,
이 표현은...



지난 25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무역관 직원에게 의문이 생겼다.

문법상 shall이란 단어는
'의무'의 뜻보다는,

2 Appearance And Cure. U
fied, the color the protecti
scribed herein shall be black.

'~해야 한다'라는 권장
또는 권유를 뜻하는
용법이 아닌가?

단어 표현에 대한
의문을 지닌 채 다음 날
한국에서 도착한
N사 대표와 함께,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성이 난 바이어 6명과
상담을 시작했다.

앞서 보신 여러 성분 분석과
시험성적서 등을 토대로
품질과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완전한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요구 스펙에
어긋납니다!



당장 생산라인에 있는 부품
3만 개와 안전재고 20만 개는
수용불가라고요!

등줄기에 작은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국내 기업 J대표의 표정 또한
어두워진 상황 속에서,

무역관 직원은 애써 눈에
레이저빔을 켜고 대화를 이어갔다.

바이어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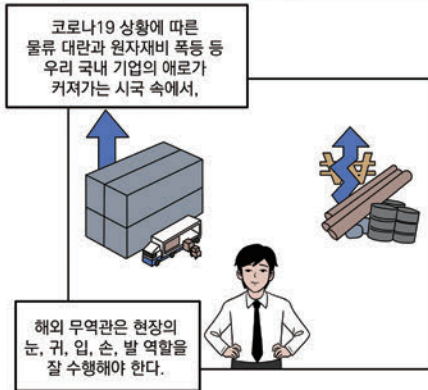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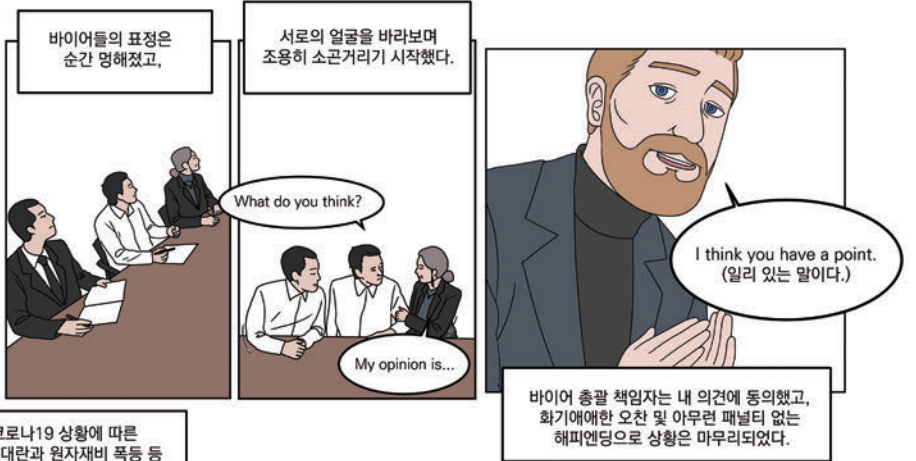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현지에서 교육도 받으시고
네이티브 영어를 하시는데

제가 감히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 자동차 스펙을
다루어 보았는데 'Must'라는
의무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

이건 코팅 특성상
변색 가능성을 염두하고
표현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A 4435M 스펙에는
굳이 'Sh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8화

—

공포의 환영 축포

나의 첫 해외 근무지
서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



이곳에 온 지
고작 일주일일 지난
1980년 4월 8일
금요일 부활절 밤.
이곳에 온 지 고작 일주일.

총소리를
처음 들은 건
밤 9시경이었다.



간헐적으로 들리던
총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공알 붐뚱이 요란스레
밤공기를 진동시켰다.

글쎄... 뭐,
부활절 축제행사 아닐까?



내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다.



무슨 일이야?



7개월짜리 딸애를
안은 아내는 믿지 않는 모습이다.



무슨 난리인지
알아보려 보낸 경비원이
한참 뒤에 돌아와 말했다.



No president



No government

No policeman!

아...
무정부상태!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놈한테
해코지를 당하고



내 아내가 폭도들에게 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선생님과
식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좋아. 일단은
일어 보기로 한다.

사태가 좋아지고
우리 가족이 무사하다면
후하게 사례하리라는
다짐과 함께...

새벽 6시경.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시내 여기저기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원주민들은
하나둘 무리지어 다니더니
어느새 폭도로 변해버렸다.



상가와
슈퍼마켓이
털리고

은행과
호텔이 털렸다.



외국인이 사는 집들 역시 그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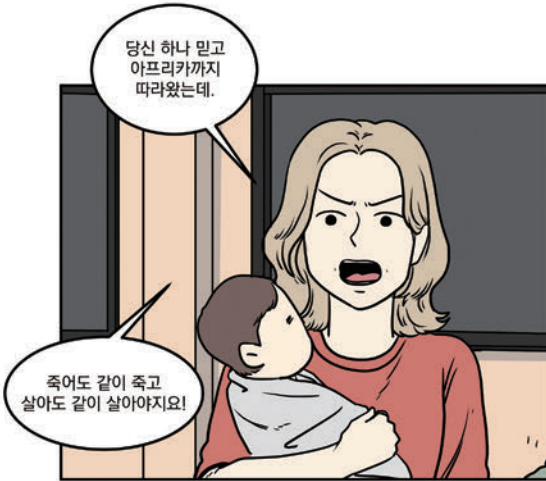


집 앞 도로에
세워둔 차가
박살이 났다.



대사관으로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관문을 여러 명이
부서져라 두드린다.



무슨 일인가
문틈으로 내다보았다.



도망친 농림차관이
이 건물에 숨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 때
길 건너편 집에서
평하고 불길이 솟았다.

그러게 우리가
그렇게 가지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저희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6시부터 통행금지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네요.



살아남으세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팔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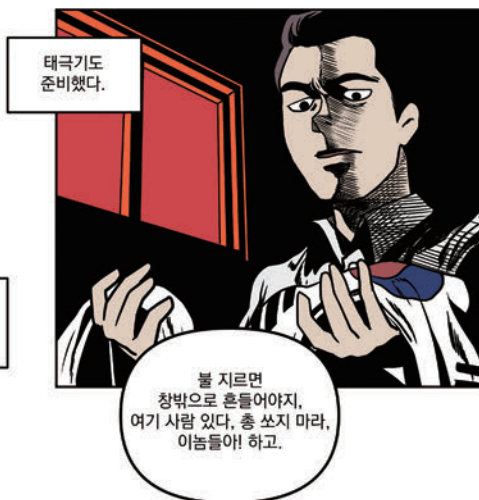
땀구멍, 털구멍으로
온몸의 진기가
스멀스멀 빠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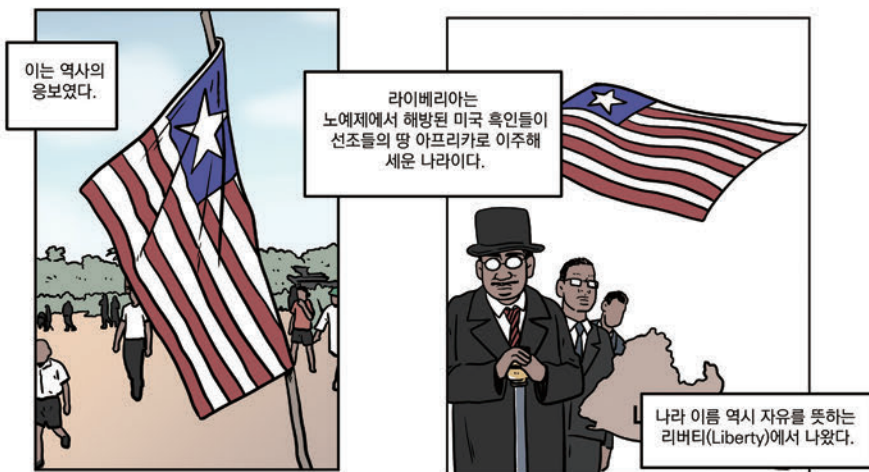
서른한 살인 내가
이렇게 죽으려 여기
아프리카에 왔구나!



마누라는
남편 잘못 만나
이 지경에 이르렀고...

아!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주해 온 흑인들은
같은 흑인인 원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냈다.



그러다 결국 이주민들의 탄압에
저항한 원주민 출신 군인들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쿠데타의 리더
사무엘 도우 상사는
국가원수의 자리에까지
오르지만,



1990년 9월 9일.
그 또한 고문을 받으며 결국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라이베리아에서의
근무는 힘들었다.
고생도 지지리 많이 했다.



그 이후에도 서너 차례 더
생사를 가르는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부부모임 등에서
함께 역경을 헤쳐 온
집사람을 나는 이렇게
소개하곤 한다.



제 아내이자
동지입니다.



현자부임 당시
7개월짜리 갓난애였던
딸은 결혼해서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줬다.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느덧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했다.

생사를 가르는
역경 속에서도 빛나던
아프리카 밤하늘의
별빛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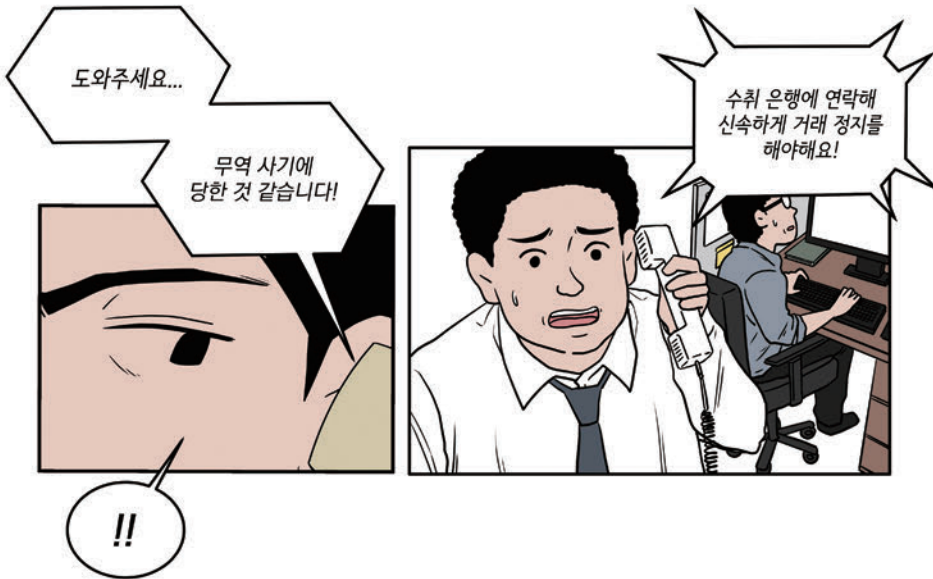
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피어난 수많은 추억들은
내 가슴속에도
빛나는 별들로 남았다.



제9화

—

글로벌 무역 사기를 해결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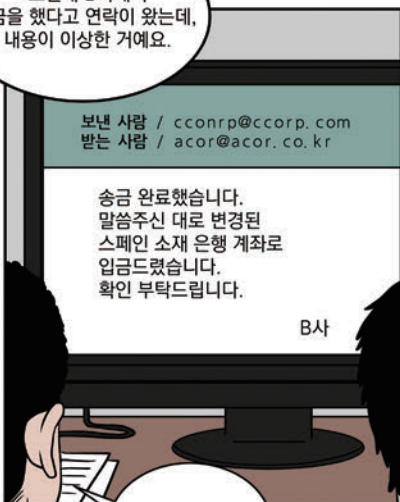


네.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A사라고 하는데



연휴기간 중에
중동 바이어 B사와
수출 계약을 맺고
송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송금을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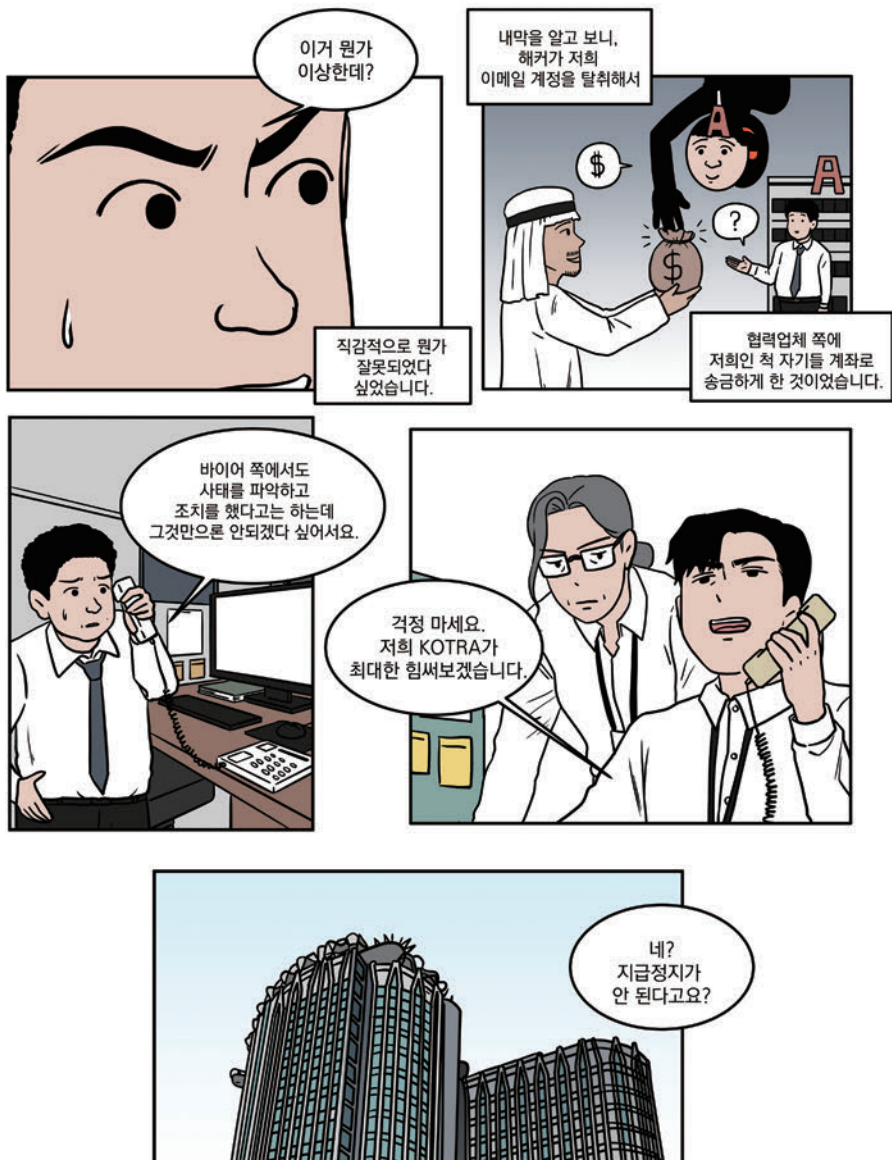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쪽 계좌
확인해보았는데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 관계기관을 통해
C사와 접촉을 시도하고
는 있습니다만...



송금 정보만 가지고
저희가 해당 기업을 찾으려니
진행이 너무 더딘 실정입니다.

KOTRA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피해자를 찾기가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와 협조해 증거를 확보,
체포 작전을 함께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음...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국 중소기업이라면

우리 쪽 고객 DB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체포 작전,
함께 해 보시죠!



역시
맞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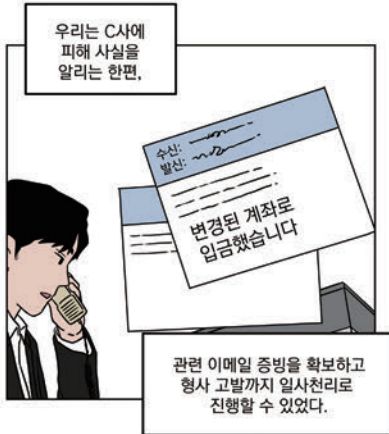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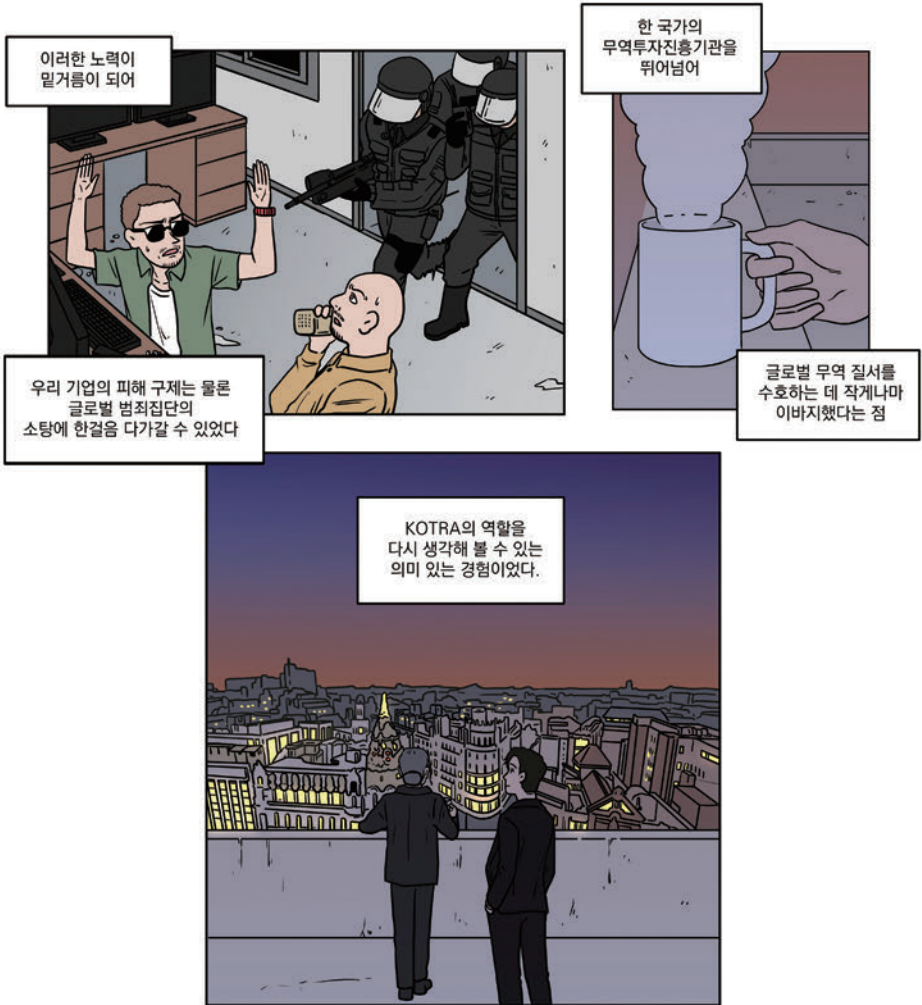
C사가 이미 우리 쪽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그쪽에서 올린
무역 관련 문의글을 통해
해외사업 담당자 연락처를 확보했네.



KOTRA의 방대한
무역기업 DB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군요!





제1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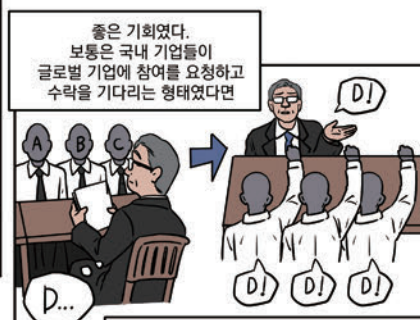
GP, 새로운 기회를 열다







2010년 11월
GP Chicago 행사에서
KOTRA는 A사와







당시 GP팀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 청년인턴 4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공학적 지식이 부족하니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과 함께
제품별 세부 부품을
시각적으로 그리는
Mapping 작업을 시작했다.



공학적 마인드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산학 협력 인턴들은 그야말로
청산유수처럼 관련 부품기업을
도식화하고 멋진 그림으로 표현해 냈다.

매핑은
국내 기업들이 제작하는
부품들을 텍스트가 아닌
명확한 형태의 이미지로
구현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부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된다.



James는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 등을 포함한
국내 기업 매핑 카드를 가지고
전국을 누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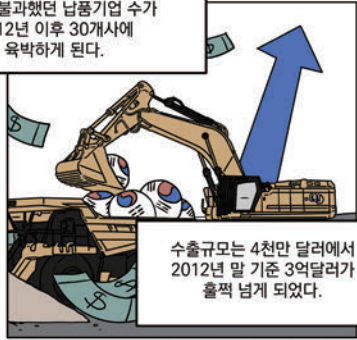


제10화 GP, 새로운 기회를 열다

보통 2~3년 걸리던
밸리데이션 절차도
6개월~1년으로 단축되는 등
그야말로 대박 성과가
창출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1년 이전에는
3개에 불과했던 납품기업 수가
2012년 이후 30개사에
육박하게 된다.



수출규모는 4천만 달러에서
2012년 말 기준 3억달러가
훌쩍 넘게 되었다.



KOTRA와 같은
정부기관의 서포트
및 자원이 없었다면

보수적인 A사
경영진의 OK를 받고
이런 성과를 내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정부도
A사와의 협력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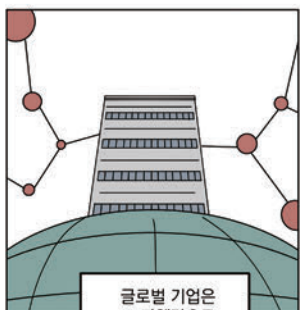


GP 사업은 산업부에서도
소재부품 분야의 대표적인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A사와의
GP 사업 성공사례를
힘입어



GP 사업은 미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의 다양한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모델 개발로 이어졌다.



글로벌 기업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시장이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도전하는 코트라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KOTRA

도전하는 코트라人 이야기

인쇄일 2022년 6월 10일

발행일 2022년 6월 24일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www.kotra.or.kr

ISBN 979-11-402-0318-5 (93320)

979-11-402-0319-2 (95320)(PDF)

KOTRA자료 22-072

비매품



*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